

여름밤 야외공연, 코로나 시름 날리세요

광주시립예술단체·광주문화재단
 도심 곳곳 야외 공연장 다양한 무대
 내일 비엔날레 광장 '예술날개 트레일러'
 26일 유·스퀘어 발레 갈라 콘서트
 8월 12~22일 쌍암공원 연극 '전우치'



광주시립예술단체와 광주문화재단이 광주시청 야외공연장, 광주비엔날레 야외광장, 진월동 푸른길 등 야외 공연장에서 다양한 무대를 펼친다. 광주시립발레단이 지난해 선보인 발레 갈라 콘서트 모습.

광주시청 야외공연장, 광주비엔날레 야외광장, 진월동 푸른길 등 도심 곳곳의 야외 공연장에서 다양한 무대가 펼쳐진다. 광주시립예술단체와 광주문화재단이 코로나 19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 침체된 지역 문화예술계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마련한 공연이다.

먼저 광주문화예술회관은 '코로나 극복 힐링 콘서트'를 준비해 시민들의 생활 속으로 찾아가는다.

첫 번째 주자는 광주시립발레단이다. 발레단은 26일 오후 7시 광주 유·스퀘어 야외무대에서 발레 갈라 콘서트 '발레로 떠나는 세계여행'을 선보인다.

이날 공연에서는 스페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한국 등 여러 나라의 개성이 담긴 발레작품을 무대에 올려 시민들에게 세계여행을 선사할 예정이다. 첫 번째로 선보일 작품은 최고(最古)의 로맨틱 발레인 '라 실피드'의 2막 2인무다. 이어서 '백조의 호수' 2막 중 정열적인 춤사위가 돋보이는 '스페니쉬춤'과 러시아 인형 마트로스카에서 착안한 '러시 안춤'으로 관객과 만난다.

또 기마민족의 특성을 반영한 우크라이나의 민속춤 '고팍'을 선보이며 이어서 한국적 발레를 경험할 수 있는 광주시립발레단이 창작한 '하늘빛 그리움' 중 대표장면과 '고집쟁이 딸'의 2막 2인무를 선보인다.

다음 공연은 광주시립극단의 수시공연 '전우치 come-back with 바리'다. 8월12~22일 침담쌍암공원(광주광산구 쌍암동)에서 열리는 공연은 전우치 시리즈 다섯 번째 작품으로 바리공주 설화와 전우치 이야기를 섞은 연극이다. 이어 광주시립극단이 8월 29일 노대제(광주시 남구 노대동), 8월 30일 푸른길(광주시 남구 진월동)에서 창작극단의

대표레퍼토리를 선보이는 '단막창극 갈라공연'을 펼친다.

9월에는 광주시립합창단 '한 여름밤의 음악회' (9월 3일 비엔날레 광장),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송소희와 함께하는 국악 한마당' (9월 10일 시청 야외공연장), 광주시립교향악단 특별공연 (9월 12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장) 등이 열린다.

광주문화재단은 6월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오는 24일 오후 6시 30분 광주비엔날레 야외광장(광주시 북구 용봉동)에서 '제2회 예술날개 트레일러' 공연을 선보인다.

'평범한 일상이 그리는 날에...'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날 공연은 장애·비장애 예술인의 융·복합공연으로 편견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기획됐다. 공연에는 휠체어댄스, 재즈 피아노, 트로페라(트로트+팝페라) 등 다양한 장르 장애·비장애예술인 총 5팀이 참여한다.

첫 무대는 휠체어 댄스 국가대표로 활동하는 송호천·정하운이 댄스스포츠와 차차차 그리고 톰바 등으로 꾸민다.

이어서 시각 장애인 천재피아니스트 강상수가 드라마 이태원 클래스 OST중 '시작'과 영화 알라딘 OST 중 'Speechless' 등을 편곡해 연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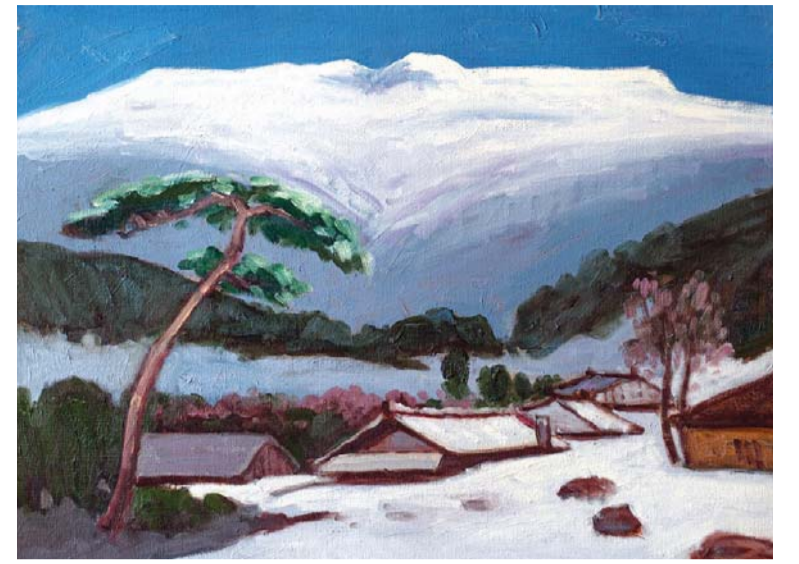
특히 팝페라 그룹 '빅맨싱어즈' 김제선, 트롯 가수 배진아 등이 함께 무대에 올라 노사연의 '만남'을 선보일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실용음악을 기반으로 전통국악과 플라보레이션 공연을 선보이는 광주시립문화예술단(대표 이바다)은 '월봉서원, 마음을 건다(이심전심以心傳心)'를 주제로 고봉 기대승의 삶을 음악으로 그려내며, 퓨전클래식 전문 단체 N뮤지크(대표 김숙희)는 미디어파사드, 드로잉퍼포먼스, 액팅페인팅퍼포먼스 등이 어우러지는 무대로 관객과 만난다.

한편, '예술날개 트레일러'는 지난 5월 첫 공연을 선보였으며 오는 11월까지 매달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 열린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고 김재균 전 국회의원 회고전

7월26일까지 광주문예회관 갤러리



'무등서설'

정치인, 화가, 시인.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던 고(故) 김재균(1952~2015) 전 국회의원을 기억하는 전시회가 열린다.

광주문화예술회관(관장 성현출)은 무등산의 아름다운 사계와 남도 산하의 풍광을 화폭에 담아낸 김재균 작가 회고전을 오는 7월26일까지 회관 갤러리에서 개최한다. '무등의 빛'을 주제로 열리는 기획전은 김 작가의 예술적 여정을 살펴보는 전시다.

자연풍경을 소재로 한 작품을 즐겨 그린 김 작가는 우리 산천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며 자신만의 한국적 풍경을 화폭에 담아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살아생전 산행을 좋아했던 활달한 성정답게 그가 포착한 무등산의 아름다운 사계절과 남도의 자연풍경 등 35점을 선보인다. '무등의 기상', '무등을 그리며', '무등 서정' 등 눈 덮이고, 쓸쓸한 가을 정취가 묻어나는 무등산의 변화무쌍한 사계절 모습과 백일홍이 만개한 남도의 원림(園林) 명옥헌, 잔설로 뒤덮인 소재원 등 작품 속에 등장하는 풍경은 그가 직접 남도 산하를 밟고 밟으며 눈에 담아낸 풍광을 자신만의 시각으로 풀어낸 것들이다. 또 '가을이 오는 내 고향 풍경' 등 소박한 마을 정경들도 화폭에 담았다.

그는 1998년 '시대문화' 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며 문단에 등단, 시집 '달빛 아래 쫓겨온' 등을 펴냈다. 대한민국미술대전에서 다수 특선을 수상했으며 타계 직전까지 그림을 그리며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또 민선 2기, 3기 광주시 북구청장과 제18대 국회의원 등을 지냈다. 관람 시간 오전 10시30분~오후 7시30분. 문의 062-613-8357. /김미은 기자 mekim@

광양에 들어서는 전남도립미술관 개관 내년 3월로 연기

전남도는 '코로나19' 세계적 확산으로 도립미술관(조감도) 개관을 올 10월에서 내년 3월로 연기했다.

전남도립미술관 개관준비단은 전남을 국제예술도시로 세계에 알리고자 개관행사로 대규모 국제전을 기획했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세계적 확산으로 국내외 미술관이 장기 휴관하면서 미술관 교류가 중단되거나 지연돼 작품대여 협의가 원활치 못한 상황이다.

또 최근 개최된 전문가 회의에서는 세계적인 작품 대여와 소장작품 보존 안전성 확보를 위해 미술관 준공 후 6개월 내외의 안정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도립미술관 개관을 내년 3월로 연기하고 개관까지 전시·운영 분야의 역량을 비롯 국내외 미술계와 네트워크를 강화해 개관전시를 더욱 체계적으로 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개관 기획전시로 '남도 거장과 해외 거장의 비교전시'와 함께 '남도미술 중심 현대미술전', '4차 산업혁명시대 뉴미디어전' 등을 선보이고 국제학술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전남도립미술관은 광양읍 옛 광양역사 1만1580㎡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세워진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이지호 전남도립미술관개관준비단장은 "전남은 문화예술적 자원이 풍부한 곳으로 전남도립미술관 개관을 통해 예향 전남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부각시키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민선7기 전반기 문화정책 평가·발전방안 모색 포럼

내일 5·18민주화운동 기록관 세미나실

민선7기 전반기 문화정책과 주요 사업을 주제로 한 포럼이 열린다.

광주문화도시협의회, 광주민예총, 상상실현네트워크 세 단체는 24일 오후 3시 5·18민주화운동 기록관 7층 세미나실에서 '민선 7기 전반기 문화정책 평가 및 발전 방안'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은 송진희 호남대학교 예술대학장 사회로 진행되며 김준영 광주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이 '품격 있는 문화 일류 도시 광주를 위한 민선 7기 2년 성과 및 향후 정책방향'을, 서순복 조선대 법과대학 교수는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본

민선 7기 전반기 문화정책 평가 및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를 한다.

이순학 상상실현네트워크 공동대표와 김지원 광주문화재단 정책기획실장, 이현미 광주민예총 사무처장, 박상현 상상실현네트워크 사무처장, 김종필 광주문도협 협동사무처장, 조인형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의견을 나눈다.

주제 발표자와 지정토론자 및 패널은 '품격 있는 문화도시를 표방한 민선 7기 전반기 문화 정책 및 공약 이행도', '문화 행정 혁신 및 문화 협치 구축', '조성사업 정상화와 문화전당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 등을 토론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유·스퀘어 코리안솔로이스츠 공연 취소

코리안솔로이스츠 공연이 코로나 19 영향으로 취소됐다.

유·스퀘어 문화관은 23일 오후 7시 30분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코리안솔로이스츠의 'All That Chamber with Beethoven' 공연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는 27일 열리는 박성원 바이올린 리사이틀 등 대관 공연은 예정대로 열릴 예정이다.

유·스퀘어 문화관 관계자는 "공연을 오랜시간 기다려주신 관객분들께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라며 "하루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공연장에서 만나뵙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박기태 작가 개인전 '걷는 여자들'

30일까지 양림동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



'걷는 여자들'

박기태 작가 개인전이 오는 30일까지 광주시 남구 양림동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에서 열린다.

'걷는 여자들'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박 작가는 현대인들의 허위의식을 주제로 한 조각과 회화 작품을 선보인다.

런 웨이를 걷는 모델들에서 작업의 모티브를 얻어 작업해온 박 작가는 '모델'의 이미지는 외형적인 동경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그 모습에서 오히려 삭막해진 현대인들의 감정과 허식을 느꼈고 그 감정을 작품으로 형상화했다.

작품 소재는 나무, 돌, 청동 등 전통적인 조각 재료 대신 스티로폼을 사용했다. 공장에서 수도 없이 찍어내고 부풀려지는 스티로폼의 특성이 현대인들이 가진 거품과도 같은 허위의식과 유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스티로폼이 갖고 있는 가벼움 역시 부유하는 현대인들의 삶을 표현하는 데 적합하다고 여겼다.

박 작가는 전남대 미술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을 수료했다. 문의 062-682-0976.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

062 673 5858 (모발모발)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